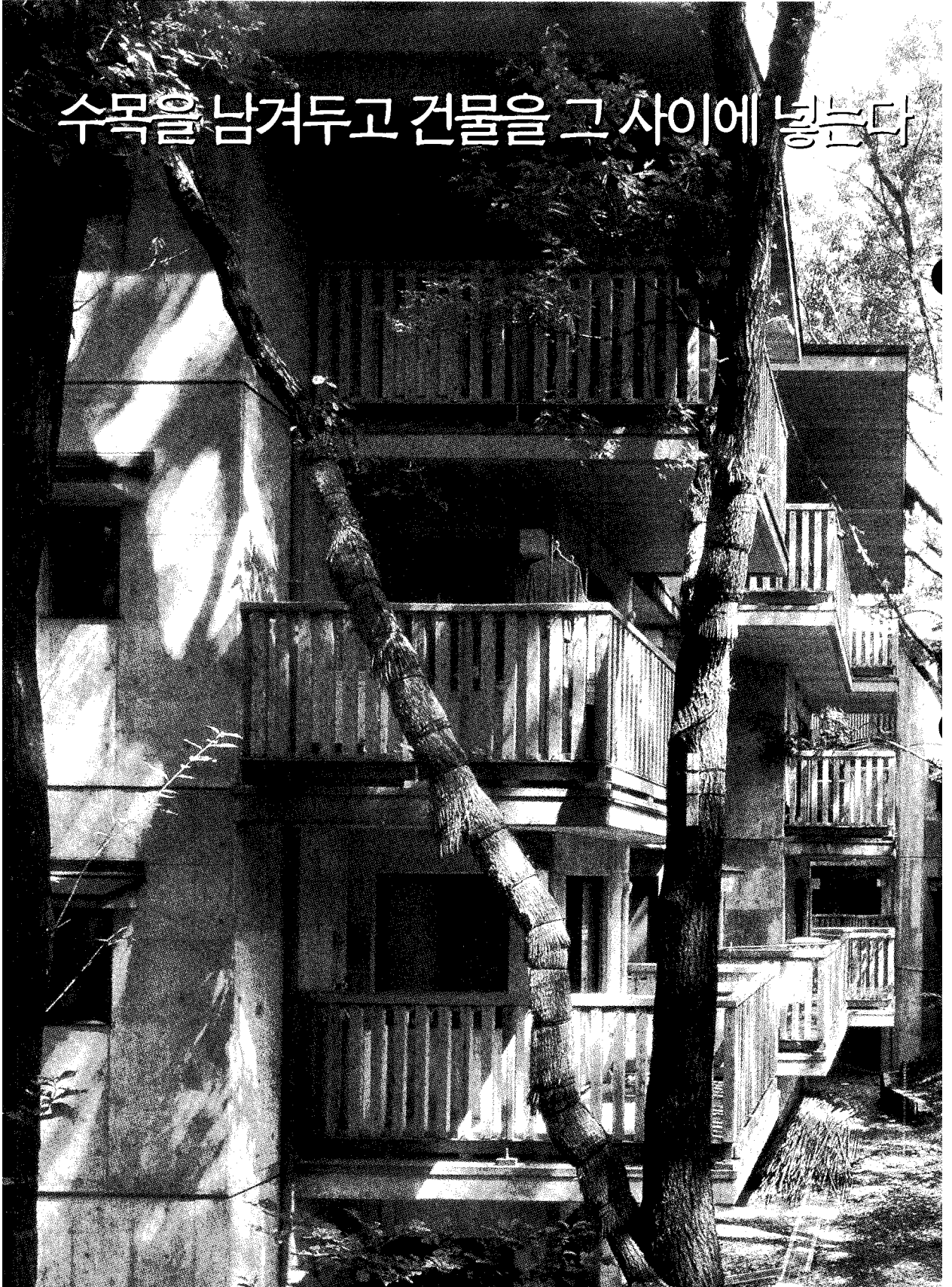


해외건축

고지가라마(愛知縣 長久手町)

수목을 남겨두고 건물을 그 사이에 넣는다






“포장을 해주면 고맙겠는데” 고지가라 마을로 가는 길에서 택시 기사는 쓴웃음을 띠운다. 고지가라 마을은 名古屋市에 인접하는 長久手町에서 사회복지법인 愛知 다이요 노무리가 경영하는 시설군의 총칭이다. 특별양호노인홈과 유치원, 간호전문학교 등이 하나의 산 속에 모인다. “길가의 풀을 용서하는 마음이 있는 곳”이 경영이념이다. 이 시설에 연결되는 도로가 울퉁불퉁한 것도 그런 생각의 표현이다.

그 고지가라 마을에 2001년 4월 케어하우스와 헬퍼스테이션, 데이서비스가 복합된 시설이 들어 왔다. 건물은 숲이 짙은 나무에 쌓여 있어 정면에서 전체 모양은 알 수 없다. 산에 자생하는 ‘참나무’를 남겨두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결과다. 부지에 자라고 있는 참나무는 전부 100그루로 그 중 75그루를 남겨두었다.

“요망한 것은 수목을 베지 않고 건물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한 것 뿐이다” 발주자인 愛知 다이요 노무리의 吉田一平 시설장은 말한다. 그러나 이것이 어려웠다.

수목을 남기기 위해서는 10m의 고저차를 가진 계획용지임에도 불구하고 조성을 전혀 할 수가 없다. 모든 수목을 한그루씩 면밀히 실측하여 가로 세로 위치를 수목에 맞추어 조정하면서 필요한 바닥면적을 잡을 수 있도록 계획을 몇번이고 되풀이하였다.

결론이 난 것은 25번째의 안이었다. 설계를 한 NOV건축空房의 酒井宣良 대표는 “서로 무엇이나 말할 수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간단히 타협이 안된다. 끈기가 필요한 작업이었다”고 되돌아 본다. 실은 酒井씨와 吉田씨는 長久手町에서 자란 어린 시절의 동무다. 다른 발주자였으면 실현할 수 없었을 것이다.

참나무의 잡목림은 두사람에게 공통의 원풍경이다. 어린 시절에 경험한 시간에 쫓기지 않고 숨어서 놀 수 있었던 장소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. 잡목림을 남김으로써 고지가라 마을의 ‘길가의 풀을 용서하는 마음이 있는 곳’을 지켰다. <外誌에서> 

부지는 참나무가 무성한 잡목림이다. 수목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푸르름이 더한 계절에는 건물에 잎이 덮여 씩씩하게 된다. 케어하우스의 각 방에는 모두 넓은 발코니가 붙어 있고 발코니의 총연장은 약 800m나 된다.